

#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조위수, 조연주, 이수지, 이영희, 오상민, 조완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http://www.kci.go.kr)

#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조위수, 조연주, 이수지, 이영희, 오상민, 조완철  
(부산외국어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에 관한 문헌 검토
3. 요구조사
  - 3.1 요구조사 대상 및 방법
  - 3.2 요구조사 분석 결과
4. B대학교의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
  - 4.1 언어적응 콘텐츠의 개발 원리
  - 4.2 언어적응 콘텐츠의 개발 절차와 구성 체제
  - 4.3 언어적응 콘텐츠의 실례
  - 4.4 언어적응 콘텐츠 평가
5. 결론 및 제언

<Abstract>

**Cho Wi Su, Cho Youn Chu, Lee Su Ji, Lee Young Hee, Oh Sang Min, Cho Wan Cheol.** 2019. 7. 30.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Adaptation Contents for North Korean Refugee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4. 179-205.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discussing ways to develop the linguistic adaptation content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issue of inter-Korean language heterogeneity has

www.kci.go.kr

been considered as the main factor preventing them from settling in South Korean society beyond communication, but practical education measures are still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has shed light on the linguistic adaptation contents development that enables self-learning considering learner's circumstances. To this end, it examined the principles of contents developmen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n linguistic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in-depth interview with them from March 14 to July 1, 2018. In addition, it analyzed the videos and self-learning workbooks developed by B University. The contents are expected to reduce the refugees' linguistic and cultural difficulties to some degree, but the needs for customized educational materials reflecting learners' variables and motivations are also suggested. The failure to validate the contents would remain its limitation. However, this work has its meaning in that it has extracted educational contents and forms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needs analysis, and illustrated the contents development through the case stud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linguistic adaptation, contents development, vocabulary, culture

## 1. 서론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sup>1)</sup> 이들은 입국 초기부터 정부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

---

1)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 /NKDefectorsPolicy/status /lately/#sel](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sel)(검색일: 2019년 01월 28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은 분단으로 인해 생겨 버린 체제와 사회문화 차이로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남북 언어 차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조위수·조완철, 2018). 특히 어휘와 언어문화 영역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북한이탈주민과 접촉국민 사이에서 오해와 편견을 생성하기도 한다(신명선·권순희, 2011; 강보선, 2013; 국립국어원, 2005; 국립국어원, 2006).<sup>2)</sup>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체계적인 교육 지원은 미비한 편이다.<sup>3)</sup>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부족도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생업과 학업의 병행으로 장기적인 집합교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를 대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돕는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자가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와 자습서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관련 문헌과 그들의 요구를 살피고, 2018년 부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B대학 언어적응교육 콘텐츠의 개발 과정과 결과물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언어문화'를 남북의 화법(화행 등)과 언어 예절(호칭, 지칭, 경양어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3)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오면 하나원에서 사회적응훈련(12주)을 받게 되는데, 이 중 언어 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지역적응센터에서 초기집중교육(2주, 60시간)을 이수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언어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 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에 관한 문헌 검토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적응 실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과 적합한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2000년도 이후 본격화되어, 언어적응 실태, 교육 내용,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교육 방안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언어적응 실태를 다룬 연구로는 문화관광부(2001), 국립국어원(2005, 2006), 양수경(2013), 권순희(2014b), 정성훈(2017), 강진웅(2017), 안한나(2018)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발음·역양 및 어휘, 어문규범, 언어문화 등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경향은 어휘 영역에서 심각성을 드러내어 의사소통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음이 보고된다. 문화관광부(2001), 문금현(2007), 신명선·권순희(2011), 김명민(2011), 김수라(2012), 강보선(2013), 박명수(2013), 신혜진·김영주(2013, 2014)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 사용 실태 및 교육 방향을 정리하면 (1) 어종에 따른 차이로는 ‘외래어·외국어>한자어>혼종어>고유어’ 순으로 나타났다. (2) 어휘교육은 문화교육과 병행하여 담화 상황 내에서 어휘를 제시하고 ‘의미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3) 남한특수어, 이형동의어,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등을 병행 제시하여 어휘 사용의 이해를 높인다. (4) 사용 빈도,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 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교육용 어휘를 선정한다. (5) 남북한 사전을 통한 어휘 비교 및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경험 사례 수집이 필요하다. (6) 남한의 외래어와 외국어 교육 시 순화 어휘를 함께 제시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은 한국어 교육적 성격을 띠지만, 통일 이후 국어교육을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

남북한 체제와 사회문화적 차이는 언어의 화용적 측면에서도 이

질화를 가져왔다. 언어문화에 관한 연구에는 문금현(2007), 양수경·권순희(2007), 전정미(2010a, 2010b, 2010c), 고윤석·김영주(2013), 김효현(2013), 이주량(2016), 김태연(2017), 전정미(2017), 양수경(2018)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 나타난 언어문화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1)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적 배경 이해가 중요하다. (2) 문법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법, 화행 교육이 필요하다. (3) 난이도, 사용빈도, 남북한의 차이, 학습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4) 남북한 화법, 화행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문화적 배경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방안 관련 연구에는 문금현(2007), 국립국어원(2010), 전정미(2010c), 국립국어원(2011), 신명선·권순희(2011), 배준영(2013) 권순희(2014a) 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생업으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들이 재미있게 남한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금현(2007)에서는 책으로 된 교재만으로는 발화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낼 수 없으므로, 학습 흥미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생활 관련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가학습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요구조사

본 연구에서는 ‘어휘’와 ‘언어문화’ 범주의 교육 주제를 선정할 목적으로 2018년 3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상황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심층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3.1 요구조사 대상 및 방법

다음은 면담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면담 대상자 인적 정보>

| 연번 | 사례 | 성별 | 나이 | 출신 지역 | 거주기간 | 직업      | 면담 횟수 |
|----|----|----|----|-------|------|---------|-------|
| 1  | A  | 여  | 65 | 함경북도  | 10년  | 미화원     | 1회    |
| 2  | B  | 여  | 38 | 함경북도  | 10년  | 자영업자    | 2회    |
| 3  | C  | 여  | 56 | 함경북도  | 13년  | 공무원     | 1회    |
| 4  | D  | 여  | 53 | 평안남도  | 10년  | 간호조무사   | 1회    |
| 5  | E  | 여  | 20 | 함경북도  | 10년  | 학생      | 2회    |
| 6  | F  | 여  | 41 | 함경북도  | 10년  | 미용사     | 2회    |
| 7  | G  | 여  | 41 | 함경북도  | 10년  | 주부      | 1회    |
| 8  | H  | 여  | 51 | 양강도   | 8년   | 건축일용노동자 | 1회    |
| 9  | I  | 여  | 66 | 함경북도  | 9년   | 상담사     | 1회    |
| 10 | J  | 여  | 37 | 함경북도  | 12년  | 사무원     | 1회    |

면담 대상자는 남한 거주 8~13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연구진이 자원봉사를 통해 1년 이상 신뢰 관계를 형성해 온 탈북민 가족을 면담한 후, 이들을 통해 지인을 소개받고, 다시 그들의 지인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피면담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20대 1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2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직업 역시 미화원, 자영업, 공무원, 간호조무사, 학생, 미용사, 주부, 노동자, 상담사, 사무원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성별과 출신 지역 면에서는 전원 여성에, 대다수가 함경북도 출신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sup>4)</sup> 피면담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4) 북한이탈주민 전체 입국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0년 후반 탈북 여성은 12%에 불과했으나, 북한

있도록 면담 장소는 자택이나 직장 근처 커피숍 등을 선택하였다. 면담은 1회 평균 2~3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을 하거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면담 내용은 피면담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취록으로 작성한 후, 어휘와 언어문화 범주로 나누어 교육 주제를 추출하였다.

### 3.2 요구조사 분석 결과

여기서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어휘와 언어문화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상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3.2.1. 어휘

피면담자들이 경험하는 어휘의 장벽은 흔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이라 여겨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서도 고충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 오면 지하철 타는 법, 버스 타는 법, 아주 기본적인 거, 슈퍼 가서 장바구니(카트)를 가리킴) 이용하는 거, 전혀 모르거든요.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엘리베이터도 누르고 지하 1층, 지상, 아주 기본적인 거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사례 B)

맨 처음 와서 오자마자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사러 가자니까 ‘슈퍼’라는 게 알아 못 들어서. 우리 ‘상점’이라 하니까. (사례 A)

관리사무소에서 여기다(가스 회사 번호를 보여주며) 가스 연결해 달라고 하라고 하는데 휴대폰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아무 데나 전화하는 곳 찾아갔는데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신청서류 쓰는 거 알려 주면 좋겠어요. (사례 F)

---

남성들의 장기 군 복무로 인한 탈북의 어려움, 여성들의 위장 취업 용이성 등의 이유로 여성 탈북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한 해 입국자 평균 85%(누적 평균 72%)가 여성이다. 탈북인들의 재북 출신 지역으로는 함경북도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어휘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곧 직장에서 업무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식당 일 하는데 ‘좋은데이’ 술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나는 모르고 ‘좋은데이’ 하나끼이 ‘좋은 데서 왔는가 하고요?’ (물었다). 사람들이 젊었으니까 (나보고) 홀서빙 하라 합디다이. 근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사례 G)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정착 초기에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어휘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 물건 사기, 교통, 통신(휴대전화, 컴퓨터 등),  
공공기관(공문서), 취업, 교육, 은행, 식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어휘 교육은 어휘 설명과 함께 관련 문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하며,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한 세계 지식(world knowledge) 및 소양 부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부분도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 3.2.2. 언어문화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생활에서 언어문화 차이로 남한 주민과의 불화가 자주 발생하였다.

무조건 부딪쳐야 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너 그만 안 두면 내 그만둔다 하고 (싸워서) 사장도 오고 난리 쳤어요. (사례 D)

면담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남북한 화법과 같은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빚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데, 여기(남한) 사람들은 돌려 말합디다. 아참쓰는<sup>5)</sup>

결로 보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사례 G)

두 사례는 모두 남북한 표현방식의 차이, 즉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설적인 태도는 요청, 거절 등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남한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염려스러운 것은 개인의 경험을 남한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문화 교육의 범위를 심층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생활과 밀접한 상황별 주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
|---|
| 직접·간접 화법, 거절 문화, 사과 문화,<br>요청 문화, 감사 문화, 언어예절(호칭, 인사 등) |
|---|

언어문화 교육내용 설계 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북 언어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 성립’이다. 정착 초기 단계부터 북한이탈주민에게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에게도 언어문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B대학교의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가학습을 위해 B대학교에서 개발한 언어적응 콘텐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5) ‘아참쓰다’는 북한어 사전에서 검색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피면담자(사례 G)에 의하면 ‘아부하다’라는 뜻으로 본인의 고향(함경북도)에서 통용되는 말이라 한다.

#### 4.1 언어적응 콘텐츠의 개발 원리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콘텐츠는 그들이 원하는 공간과 장소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영상 강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감각 양식을 사용하여 학습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실사례를 영상을 통해 재연해 준다면 그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한편 자습서는 시각 중심의 매체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고 다양한 삽화와 사진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 어휘와 언어문화 영역을 주요 내용으로 선정하여 조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콘텐츠의 개발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언어적응 콘텐츠의 개발 원리>

| 구분           |          | 개발 원리  |
|--------------|----------|--|
| 교육<br>매<br>체 | 동영<br>상  |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              |          | 사용이 편리해야 한다.                                     |
|              |          |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
|              | 자습<br>서  |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
|              |          | 학습 양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                                |
|              |          | 삽화나 사진을 통한 실물 제시가 필요하다.                          |
| 교육<br>내<br>용 | 어휘       |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항목을 추출한다.                           |
|              |          | 외래어 및 한자어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이질적인 어휘 항목을 추출한다.        |
|              |          | 북한에도 있지만 쓰임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을 어휘 항목을 교육 요소로 삼는다. |
|              | 언어<br>문화 | 실제 현실에 기반을 둔 언어문화 요소여야 한다.                       |
|              |          | 남북한의 상호문화적인 접근에 중점을 둔다.                          |
|              |          | 자주 접하는 담화 상황에 맞는 언어문화 항목을 추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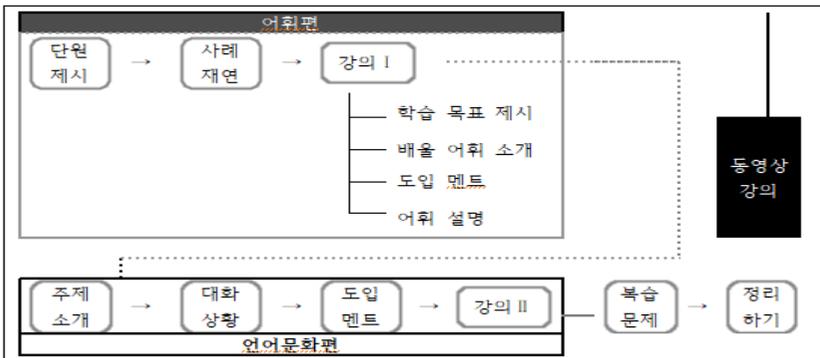
## 4.2 언어적응 콘텐츠의 개발 절차와 구성 체제

B대학교의 언어적응 콘텐츠는 ADDIE모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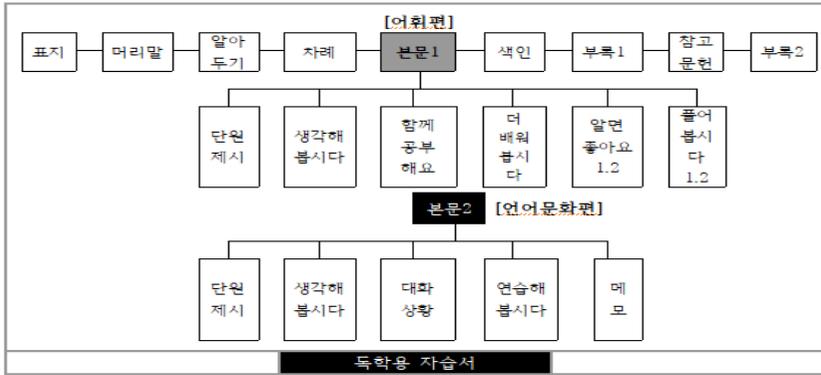


<그림 1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 절차>

<분석 단계>에서는 콘텐츠의 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요구와 학습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설계 단계>에서는 학습목표 설정, 개발 단계의 구조화, 평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본 콘텐츠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B대학은 언어적응 콘텐츠를 동영상과 독학용 자습서의 이중 체계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동영상과 자습서의 구성 체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동영상 강의 구성 체제>



<그림 3 독학용 자습서의 편집 체제>

<개발 단계>에서는 교육 범주와 교육 내용을 고안하게 된다. B대학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에 필요한 어휘와 언어문화를 각 5강씩 구성하였다. 어휘편의 주제는 ‘식당, 교통, 은행, 물건사기, 병원’ 이고, 언어문화편에서는 남 북한의 상이한 문화 차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법한 상황을 중심으로 ‘호칭표현, 사과표현, 거절표현, 감사표현, 부탁표현’ 을 주제로 삼았다.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가치와 적절성에 대해 분석한다.

### 4.3 언어적용 콘텐츠의 실패

여기서는 B대학교의 언어적용교육 콘텐츠의 실패를 통해 동영상과 자습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4.3.1 동영상

동영상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주제로 한 어휘편 5개와 남북 간 차이가 심한 언어문화편 5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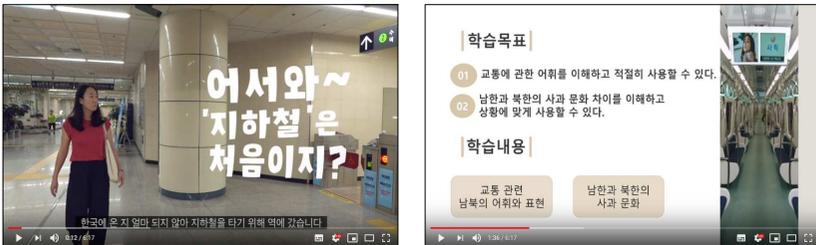
되어 있다.6) 각 영상은 동일한 구성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휘편과 언어문화편을 합쳐 10분~15분 내외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어휘 단원 제시 및 사례 재연

동영상 강의를 시작되면 주제를 제시한 후 도입 영상으로 이어진다. 도입 영상은 북한이탈주민이 겪은 실제 사례를 재연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며 흥미를 가지는 동시에 어휘 학습의 필요성도 깨닫게 된다.

### ② 학습목표 및 어휘 소개

도입 영상이 끝나면 강사가 등장하여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는 학습자가 정지된 화면을 통해 눈으로 읽을 수 있게 PPT 화면으로 출력한다. 이어 학습 어휘를 화면에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가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그림 4 사례 재연 및 학습 목표 제시>

### ③ 어휘 설명

이후 강사는 거실이나 카페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휘를 설명한다. 대부분의 어휘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6) 구성 체제에 있어 어휘편과 언어문화편은 1개의 강의로 이어져 있으나, 효율적인 학습 시간 운영을 위해 1부와 2부(총 10편)로 나누어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에 업로드하였다.

어지나, 필요에 따라 사진과 함께 제시되기도 하고 남북한 단어의 의미를 비교하며 설명하기도 한다.

#### ④ 언어문화 주제 소개 및 대화 상황 제시

어휘 설명이 끝나면 언어문화를 주제로 한 2부가 시작된다. 언어문화의 주제는 어휘편 주제와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어휘편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행 문제를 다루어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다. 언어문화편도 주제 소개 후 동영상을 통해 도입한다.

#### ⑤ 언어문화 설명

언어문화편의 도입 영상은 상황에 맞는 화행을 질문한 뒤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로 강의를 시청하게 된다. 도입 영상이 끝나면 강사의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주로 남북한의 언어문화 차이를 대조하면서 제시한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발화 상황을 강조하여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남한의 언어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복습 문제

강사의 설명이 끝나면 학습했던 내용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복습 문제는 어휘편, 언어문화편 각각 1문항씩 총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 방법은 문제가 제시된 화면에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학습자가 풀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정답을 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⑦ 단원 정리

마지막 단계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 화면으로 제시한다. 여기서는 학습 어휘를 환기시키고 언어문화 표현에서 학습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제시 방법으로는 강사의 설명 없이 화면

만 일정 시간 송출되며, 이후 강사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종료된다.

#### 4.3.2 자습서

자습서는 동영상 강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영상의 흐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동영상 강의에서 시간 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 ① 표지 및 머리말

자습서는 B5 크기(18.2 x 25.7cm), 130쪽 내외로 휴대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었는데, 자습서만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림 자료와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자습서의 표지 부분에는 어휘와 언어문화의 주제에 해당하는 동영상 장면을 스크린 샷(screenshot)하여 사진으로 제시하였으며, 머리말에는 자습서의 소개와 함께 제작 의도를 설명하였다.

##### ② 알아두기 및 차례

‘알아두기’에서는 자습서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구성 요소별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또한 ‘차례’에서는 1장~5장의 순서와 쪽수를 표시하여 학습자가 희망하는 단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어휘편

‘생각해 봅시다’에서 사례 재연 영상을 요약하고, ‘함께 공부해요’에서 학습 어휘를 제시한다. 이어 동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어휘를 ‘더 배워 봅시다’에서 추가 설명하며, 어휘와 관련된 정보나 문화 관련 요소들은 ‘알면 좋아요’를 통해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풀어 봅시다’에서는 동영상보다 문제를 늘려 제시하고 있다.

KCI 한국 식당

**생각해 봅시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의 식당은 종류가 많아서 당황했어요.      메뉴(MENU)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함께 공부해요**

**식당의 종류**

한식 (한식집)      한국식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예) 조선식 식당




대표음식      비빔밥      불고기

**알면 좋아요 1**

은행 이용 안내

은행에 가면 먼저 대기자 번호표를 뽑는 기계에서 숫자가 적힌 종이를 뽑은 후, 창구 앞쪽에 자신의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 직원에게 가서 필요한 내용을 알리고 안내에 따릅니다.

번호표 뽑기

▶

창구면에 자신의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기

▶

자신의 번호가 표시된 창구 직원에게 가기

▶

필요한 내용 알리고 안내에 따르기

**풀어 봅시다 1**

※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넣어 보세요.

|   |    |    |      |      |       |
|---|----|----|------|------|-------|
| 보 | 내과 | 진찰 | 처방전  | 정형외과 | 진료 신청 |
| 기 | 치과 | 수납 | 접수창구 | 산부인과 | 이비인후과 |

1. 코와 귀 등에 문제가 있을 때 가는 병원 (            )
2. 몸속에 있는 기관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병원 (            )

**<그림 5 자습서 어휘편의 실제>**

**④ 언어문화편**

언어문화편은 ‘생각해 봅시다’, ‘대화’, ‘설명’, ‘연습해 봅시다’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에서는 화행 표현이 이루어지는 동영상을 요약하여 사진과 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의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담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무엇을 학습하게 될지 학습에 앞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영상 강의에서의 대화 내용을 학습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전사하여 제공하며, 화행 표현에 대한 설명은 주로 남북한의 언어문화적인 차이를 대조하며 상황을 통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연습해 봅시다’에서는 앞서 살펴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⑤ 색인 및 부록**

자습서의 마지막에는 색인을 통해 학습 어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쪽수가 표기되어 있으며, 부록에서는 외래어에 어려움을 겪

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영어 철자와 발음이 수록되어 있다.

#### 4.4 언어적응 콘텐츠 평가

여기서는 B대학교 개발 언어적응 콘텐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4.1 평가 대상 및 방법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한 연구자들로 이들을 통해 콘텐츠 내용과 구성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 방법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문가의 세부 인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전문가 평가자 인적 정보>

| 연번 | 전문가 | 성별 | 나이  | 직업           |
|----|-----|----|-----|--------------|
| 1  | A1  | 여  | 40대 | 북한이탈주민 연구자   |
| 2  | B1  | 여  | 20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
| 3  | C1  | 여  | 50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
| 4  | D1  | 여  | 30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
| 5  | E1  | 남  | 30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
| 6  | F1  | 남  | 30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
| 7  | G1  | 여  | 30대 | 다문화교육 전문가    |
| 8  | H1  | 여  | 40대 | 한국어교육 전문가    |
| 9  | I1  | 여  | 40대 | 한국어교육 전문가    |
| 10 | J1  | 여  | 20대 | 한국어교육 전문가    |

콘텐츠 평가는 북한이탈주민 10명에게도 동일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부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요구조사의 피면담자들은 제외하였다. 설문에 응답

한 북한이탈주민의 세부 인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4 북한이탈주민 평가자 인적 정보>**

| 연번 | 북한이탈주민 | 성별 | 나이  | 출신 지역 | 거주 기간 |
|----|--------|----|-----|-------|-------|
| 1  | A2     | 여  | 40대 | 함경북도  | 4년    |
| 2  | B2     | 여  | 30대 | 양강도   | 3년    |
| 3  | C2     | 여  | 40대 | 강원도   | 9년    |
| 4  | D2     | 여  | 20대 | 함경북도  | 14년   |
| 5  | E2     | 여  | 50대 | 함경북도  | 8년    |
| 6  | F2     | 여  | 10대 | 함경북도  | 10년   |
| 7  | G2     | 여  | 30대 | 함경북도  | 8개월   |
| 8  | H2     | 여  | 40대 | 평안북도  | 8개월   |
| 9  | I2     | 여  | 40대 | 함경북도  | 10년   |
| 10 | J2     | 여  | 60대 | 함경남도  | 4년    |

설문지는 동영상 관련 항목 5가지와 자습서 관련 항목 4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콘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문지 마지막에 의견란을 만들어 두었다. 인상 평가는 콘텐츠를 사용하며 발견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등 평가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설문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설문 문항 정보>**

| 구분 | 동영상 강의 관련 질문                       |
|----|------------------------------------|
| 1  | 동영상 강의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 도움이 되는가?    |
| 2  | 동영상 강의의 주제 항목은 학습자에게 적절한가?         |
| 3  | 동영상 강의의 시간은 적당한가?                  |
| 4  |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흥미로운가?                 |
| 5  | 동영상 강의와 같은 자료가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가?     |
| 구분 | 자습서 관련 질문                          |
| 1  | 자습서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 도움이 되는가?       |
| 2  | 각 과에서 사용된 어휘는 남한 생활에 꼭 필요한 어휘인가?   |
| 3  | 각각의 과에 제시된 어휘의 양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 4  | 언어문화 편에 제시된 주제는 남한에서 대화할 때 꼭 필요한가? |

설문 문항 제작에 있어서 인상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는 하위 문항을 만들어 질문하였다.<sup>7)</sup> 설문지에서는 주로 콘텐츠의 필요성과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적절성을 질문하였으며, 그 밖에 콘텐츠의 분량과 흥미도에 관한 항목도 있었다.

설문조사는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동영상과 PDF로 제작된 자습서 파일을 설문지와 함께 제공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는 사진이나 스캔을 통해 회수하였으며, 엑셀 파일에 옮겨 대상 및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 4.4.2 평가 결과 분석과 시사점

설문 결과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sup>8)</sup> 동영상 강의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43, 자습서는 0.830으로 두 항목 모두 신뢰도 분석에 있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동영상

동영상 강의에 대한 결과는 평균 9.42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9.48점으로 북한이탈주민(9.36)보다 높았다. 영역별로는 두 그룹 모두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에 관한 평가와 '주제 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실제적인 언어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자 모두 '식당, 교통, 병원, 물건사기, 은행'과 같은 주제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있어 우선적으로

---

7)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응답자의 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10점 척도로 설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8)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일반적으로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0.6~0.7이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다만 0.6보다 작을 경우 내적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북한주민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기관 이용이나 취업 및 직장생활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동영상 강의에 대한 평가 결과>**

| 구분        | 질문                              | 전문가         | 북한이탈주민      |
|-----------|---------------------------------|-------------|-------------|
| 1         | 동영상 강의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 도움이 되는가? | 9.6         | 9.5         |
| 2         | 동영상 강의의 주제 항목은 학습자에게 적절한가?      | 9.8         | 9.6         |
| 3         | 동영상 강의의 시간은 적당한가?               | 9.0         | 9.2         |
| 4         |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흥미로운가?              | 9.2         | 8.9         |
| 5         | 동영상 강의와 같은 자료가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가?  | 9.8         | 9.6         |
| <b>평균</b> |                                 | <b>9.48</b> | <b>9.36</b> |

한편 전문가의 경우 ‘강의 시간의 분량(9.0)’,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내용의 흥미도(8.9)’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의 시간의 분량’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하다는 응답과 동시에 3분 내외로 줄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모바일 러닝(mobile-learning)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강의 시간을 10분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5분 정도의 짧은 강의로 많은 어휘를 다룰 수 없다는 문제점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사례를 이용한 도입 등 흥미로운 요소 첨가에도 불구하고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재미있는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 요구가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 자체의 문제인지, 남북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자습서

자습서에 대한 설문 결과는 평균 9.51점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강의에 대한 평가와 반대로 북한이탈주민의 평가 점수(9.58)가 전문가(9.4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특히 화행이나 호칭을 다룬 언어문화 교육의 필요성(9.8)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 중 언어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점에서 문화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자습서에 대한 평가 결과>

| 구분        | 질문                                 | 전문가         | 북한이탈주민      |
|-----------|------------------------------------|-------------|-------------|
| 1         | 자습서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 도움이 되는가?       | 9.2         | 9.5         |
| 2         | 각 과에서 사용된 어휘는 남한 생활에 꼭 필요한 어휘인가?   | 9.8         | 9.5         |
| 3         | 각각의 과에 제시된 어휘의 양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9.2         | 9.5         |
| 4         | 언어문화 편에 제시된 주제는 남한에서 대화할 때 꼭 필요한가? | 9.6         | 9.8         |
| <b>평균</b> |                                    | <b>9.45</b> | <b>9.58</b> |

이밖에 남한 사람과 대화하기 힘든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할 때’ 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른 말투나 단어의 사용으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상 평가를 통하여 콘텐츠에 대한 평가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제별로 내용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며 콘텐츠를 학습한 후 밖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건의사항이나 개선 방향에서 외래어 교육이 더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으며, 사진을 더 많이 활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강의 시간 조정 및 학습 대상에 따른 주제 선정 등에 대한 의견도 언급되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동영상 및 자습서 콘텐츠가 북한

이탈주민의 어휘 및 언어문화 교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영상 강의 시간이나 어휘의 분량은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래어에 대한 분량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현실을 고려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 실태를 정리함으로써 교육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어휘 교육과 언어문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어휘와 언어문화 범주의 교육 주제를 선정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물건 사기, 교통, 통신, 공공기관, 식당, 은행 등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어휘 학습을 희망하고 있었다. 언어문화의 경우, 직·간접 화법, 거절 문화, 사과 문화, 요청 문화, 언어예절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문헌 검토와 학습자 요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B대학교의 자가학습 교육용 콘텐츠 개발 사례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의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B대학교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동영상과 자습서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언어 문화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헌 검토와 학습자 요구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추출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콘텐츠 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콘텐츠 개발의 실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에 관해 제언하며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한사회에 퍼져 있는 외래어와 공공기관 이용에 필요한 표현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취업 관련 내용을 개발해 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후속 콘텐츠를 개발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체성에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의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친숙한 담화 상황과 분위기를 연출하여, 그들이 교육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착의 단계와 북한이탈주민의 변인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학력, 연령 등에서 많은 변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이들이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보선(2013).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7권, 국어교육학회. 125쪽~152쪽.
- 강진웅(2017). 남북한의 언어통합: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345쪽~364쪽.

- 고윤석·김영주(2013). 북한이탈 청년의 화용능력 연구, <한국어 의미학>, 40권, 한국어 의미학회. 357쪽~384쪽.
- 국립국어원(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_\_\_\_\_(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_\_\_\_\_(2010).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_\_\_\_\_(2011).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개발.  
 \_\_\_\_\_(2016).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 김명민(2011).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외국어를 위한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수라(2012). 새터민을 위한 장소별 학습어휘 교육 연구, 숙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태연(2017).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화용적 실패 연구, <언어와 문화> 13권 3호. 27쪽~52쪽.
- 김효연(2013).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권순희(2014a).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현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권 10호, 학습자중심학회. 561쪽~586쪽.  
 \_\_\_\_\_(2014b).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교육 지원 방향, <이화어문논집> 34권, 이화어문학회. 91쪽~123쪽.
- 문금현(2007).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41쪽~172쪽.
- 문화관광부(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 박명수(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북한 외래어 대조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어휘 교재의 외래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준영(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 실태와 교육 방안 연구: 대구지역정착민을 대상으로, <어문논총> 58권, 한국문학언어

- 학회. 105쪽~132쪽.
- 신명선·권순희(2011).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8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57쪽~89쪽.
- 신혜진·김영주(2013). 북한이탈주민의 외래어 지식과 개별 변인 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어의미학> 42권, 한국어의미학회. 57쪽~89쪽.
- \_\_\_\_\_ (2014). 어휘 학습 전략이 북한이탈주민의 외래어 습득에 미치는 효과, <한국어의미학> 43권, 한국어의미학회. 33쪽~57쪽.
- 안한나(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래어 지식과 개별 변인 간의 시사점 연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15권 1호, 한국통일교육학회. 23쪽~44쪽.
- 양수경·권순희(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28권, 국어교육학회. 457쪽~483쪽.
- 양수경(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8). 남북한 거절 전략 비교 연구, <한글> 79권 2호, 한글학회. 433쪽~457쪽.
- 이주량(2016). 북한이탈주민의 요청 화행 수행 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진정미(2010a). 북한이탈주민의 사과화행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겨레어문학> 45권, 겨레어문학회. 235쪽~260쪽.
- \_\_\_\_\_ (2010b). 북한이탈주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칭찬화행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7권, 245쪽~272쪽.
- \_\_\_\_\_ (2010c). 새터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행 교육 방안 연구: 거절말하기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9권, 우리말글학회. 111쪽~138쪽.
- \_\_\_\_\_ (2017).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43권, 한말연구학회. 209쪽~237쪽.

- 정성훈(2017).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에 대한 기초 연구, <한글> 318호, 한글학회. 243쪽~268쪽.
- 조완철·조위수(2018).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을 위한 발음 억양 교육 실천 사례 특성 분석, <현대북한연구> 21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43쪽~268쪽.
- 통일부(2016). 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 통일부, 47쪽~59쪽.
- \_\_\_\_\_ (2016).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121쪽~126쪽.
- \_\_\_\_\_ (2017), 2017년 12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self/>, 검색일: 2019. 01. 28.)
- \_\_\_\_\_ (2018), 2018년 12월 말 기준 주요사업통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19. 01. 28.)

## 필자소개

성 명 : 조위수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전자우편 : only0124@bufs.ac.kr

성 명 : 조연주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전자우편 : joytothelord58@bufs.ac.kr

성 명 : 이수지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양대학  
전자우편 : 20138212@bufs.ac.kr

성 명 : 이영희  
소 속 :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원  
전자우편 : dion82@naver.com

성 명 : 오상민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당  
전자우편 : mean8410os@bufs.ac.kr

성 명 : 조완철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양대학  
전자우편 : tmxpdk@bufs.ac.kr

투고일: 2019. 7. 30 / 심사일: 2019. 8. 6 / 심사완료일: 2019. 8. 17